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현황과 유형별 특성*

오 상 학**

국문요약

제주도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지도로 표출되었다. 조선전기부터 제주도만을 단독으로 그린 지도들이 조정에서 제작되어 활용된 사실들은 여러 사료에서 확인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들은 16세기 이후의 지도들이다. 대부분 필사본 지도이지만 목판본 지도도 여러 종 남아 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지도들을 지도의 크기와 축척, 양식, 표현 기법 등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면 대축척 단독지도, 군현지도책의 지도, 전국지도첩(책)의 지도, 지리지의 지도, 회화식 지도, 기타 지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축척 단독지도는 최신의 정보를 반영한 가장 정교한 지도로 관청에서 행정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군현지도책의 지도는 이전 시기의 사본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 관부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전국지도책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는 대축척의 전국지도책에 수록된 지도이다. 지리지에 수록된 지도는 지리지의 부도로 제작된 것이고, 회화식 제주 지도는 실경화의 형태를 지니지만 지명이 수록되어 지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제어 : 제주도, 관찬지도, 회화식 지도, 탐라십경도, 목판본 지도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교수

I. 서론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중심 해역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오래전부터 인간이 정착해서 거주해 왔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아시아의 주요 항로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제주를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하게 했다. 아울러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형성된 중산간의 오름(측화산)과 광활한 목초지는 목마장을 설치하기 위한 최적지로 인식되었다. 제주도가 지니는 이러한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제작이 일찍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1007년 고려 목종 때에는 제주도의 서산(瑞山)에서 화산이 폭발하자 조정에서 태학박사(太學博士) 전공지(田拱之)를 파견하여 산의 형상을 그려 왕에게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¹⁾ 당시의 그림은 폭발로 형성된 산과 그 주변 지역을 그린 일종의 회화식 지도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전기 지리지와 지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양성지가 1482년(성종 13)에 『제주삼읍도(濟州三邑圖)』를 그려 올렸다는 기록으로 볼 때²⁾ 다른 고을이나 도서지방에 비해 지도가 활발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주도 지도는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지식인들 사이에도 유포되어 이용되었다. 실학자 이익은 제주도의 비양도를 논하는 글에서 “탐라도(耽羅圖)에 이르기를, ‘봉우리가 넷이 있었는데 흙이나 돌이 모두 붉고 수포석(水泡石)처럼 생겨 어떤 것은 우뚝 서서 사람처럼 보인다. 산 둘레에는 대가 울창하나 산꼭대기에는 초목이 없다. 여기서 나는 대는 화살감으로 아주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제주도 지도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³⁾ 아울러 호남의 실학자 위백규는 『탐라도』라는 제주도 지도를 직접 그리기도 했다.⁴⁾ 이처럼 육지부의 지식인들이 제주도 지도를 열람하거나 직접 제작할 정도로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포되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제주도 지도는 대부분 조선후기 간행된 것이다. 다른 지역의 지도들도 대부분 비슷한 실정인데 조선전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들이 전란을 거치면서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존하는 단일 군현의 지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가 남아 있다.

근래에 제주도 고지도에 대한 연구와 영인본 간행이 이뤄져 조선시대 제주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도 고지도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이찬 교수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는 18세기의 대표적인 탐라지도인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1) 『고려사절요』 제2권 목종선양대왕(穆宗宣讓大王) 10년, 정미.

2)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13일(임자).

3) 이익, 『성호사설』 제1권 천지문, 비양도.

4) 위백규, 『환영지』, 탐라도.

중의 「한라장축(漢拏壯圖)」,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탐라좌표도(耽羅座標圖)』의 세 종의 지도를 검토하여 특성을 밝혔다(이찬, 1979). 또한 이 시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탐라순력도』와 『남환박물(南宦博物)』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영인, 간행하기도 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990년대 이후 고지도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도 단위의 고지도 영인본 『제주의 옛 지도』를 간행하여 관련 연구자 및 일반 대중들에게도 제주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이와 같은 제주도 지도집을 바탕으로 1996년 이상태는 제주도 고지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고찰한 논고를 발표하였다(이상태, 1996).

2000년에는 제주시청의 주관 하에 『탐라순력도』의 영인 간행이 새로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탐라순력도』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행해졌다(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⁵⁾ 또한 제주도 고지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특징을 밝힌 연구가 2001년 양보경 교수에 의해 행해져 제주 고지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양보경, 2001). 2004년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도를 대상으로 시계열적으로 고찰한 필자의 논고가 발표되었고(오상학, 2004), 2006년에는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지명을 중심으로 연구한 김오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김오순, 2006).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지명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가 오창명에 의해 발표되어 고지도가 지명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오창명, 2000; 2004; 2006; 2007; 2008a; 2008b; 2017). 아울러 회화식 지도인 『탐라순력도』와 『탐라십경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제주도 경관의 시각적 표현과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이보라, 2007; 노재현 외, 2009; 윤민용, 2011; 김태호, 2014; 2016; 2017). 최근에는 제주 고지도에 그려진 하천의 묘사를 분석하여 계열을 밝힌 김기혁(2018)의 논문과 18세기 목판본 『탐라지도』의 지도학적 특성을 밝힌 필자의 연구가 발표되어 제주 고지도의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오상학, 2016).

그러나 1996년 이후 현존하는 제주 관련 고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발굴된 제주 고지도에 대한 연구와 이를 원색의 도판으로 수록하여 상세한 해제를 곁들인 도록의 간행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제주도 고지도와 더불어 최근에 발굴된 고지도를 분석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5) 이 논총에는 고지도 분야의 연구인 필자의 논문이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⁶⁾ 이러한 작업은 이후 제주도 고지도에 대한 후속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현황과 유형

<표 1>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 현황

지 도 명	제작자 (관찬/사찬)	제작시기	판본	규격 (세로×가로 cm)	유형	소장처
목판본 제주도 지도		17세기말	목판본	145×105	대축척 단도지도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장축」(『탐라순 력도』)	이형상 (관찬)	1702년	필사본	30×47	대축척 단독지도	제주세계유산본부
탐라지도		1706년	목판본	73.0×65.0	대축척 단독지도	경희대 혜정박물관
탐라지도		1706년	목판본	73.0×65.0	대축척 단독지도	국립해양박물관
탐라지도병서	李奎成 (관찬)	1709	목판본	250×150	대축척 단독지도	국립제주박물관
영주산대총도		1721년	필사본	104.5×59.5	대축척 단독지도	국립고궁박물관
제주삼읍도총지도		18세기 전반	필사본	119.5×122	대축척 단독지도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대정현지도		18세기	필사본	85.0×73.4	대축척 단독지도	제주세계유산본부
제주도도		19세기	필사본	126.5×102.5	대축척 단독지도	송실대 기독교박 물관
탐라지도병지	이원조 (관찬)	1841년	필사본		대축척 단독지도	개인소장
제주삼읍전도		1872년	필사본	68.9×108.6	대축척 단독지도	서울대 규장각
제주지도		1872년	필사본	58×98.3	대축척 단독지도	서울대 규장각

6) 제주도가 그려지는 지도 유형은 스케일에 따라 세계지도, 동아시아지도, 조선전도, 도별지도, 군현지도책의 제주지도, 제주도 단독지도, 제주도의 부분 지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별지도의 제주도 지도는 제주도만을 대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대신에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 전국지도의 제주지도와 제주성이나 목마장 등 제주도의 일부 지역을 그린 지도들은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현황과 유형별 특성

정의군지도		1872년	필사본	58.0×97.6	대축척 단독지도	서울대 규장각
대정군지도		1872년	필사본	57.8×97.4	대축척 단독지도	서울대 규장각
제주삼현도(해동지도)		18세기	필사본	47×30.5	군현 지도책	서울대 규장각
제주삼현도(해동지도)		18세기	필사본	47×30.5	군현 지도책	서울대 규장각
제주(全羅南北道輿地圖)		18세기	필사본	38×33.5	군현 지도책	영남대 박물관
제주목(『지승』)		18세기	필사본	27×19	군현 지도책	서울대 규장각
제주(輿地圖)		18세기	필사본	19.2×29.2	군현 지도책	국립중앙도서관
제주도 지도 (各邑地圖)		18세기	필사본	19.2×29.2	군현 지도책	국립중앙도서관
제주(湖南全圖)		18세기	필사본	17×21	군현 지도책	영남대 박물관
제주목(湖南全圖)		18세기	필사본	17×21	군현 지도책	영남대 박물관
제주(八道地圖)		18세기	필사본	18.3×26.4	군현 지도책	국립중앙도서관
제주지도(『동국여도』)		18세기	필사본		군현 지도책	고려대도서관
제주목(廣輿圖)		18세기 중반	필사본	37×28.3	군현 지도책	서울대 규장각
제주(『지도』)		18세기	필사본		군현 지도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제주정의대정 (海東輿地圖)		18세기	필사본	34×44.6	군현 지도책	국립중앙도서관
『동여비고』의 제주도 지도		17세기 후반	필사본	47.2×34.6	전국 지도첩	개인소장
『조선강역총도』의 제주도 지도		18세기	필사본	40×37.5	전국 지도첩	서울대 규장각
탐라전도(『古地圖帖』)		18세기	필사본	34×48	전국 지도첩	영남대 박물관
『지나조선고지도』의 제주도 지도		18세기	필사본	41.4×31.9	전국 지도책	국립중앙도서관
제주지도(『조선도』)		19세기전반	필사본		전국 지도책	오사카부립도서관
제주지도(『동여』)		19세기	필사본		전국 지도책	국립중앙박물관

제주지도(청구도)	김정호	1834년	필사본	23.2×35.2	전국 지도책	국립중앙도서관
제주지도(필사본 대 동여지도)		19세기 중반	필사본		전국 지도첩	국립중앙도서관
제주(東興圖)	김정호	19세기 후반	필사본	30.5×20	전국 지도책	서울대 규장각
제주지도(대동여지도)	김정호	1861년	목판본	30.5×20	전국 지도첩	서울대 규장각
제주지도(『제주읍지』)		1793년	필사본	22×31.8	지리지 지도	서울대 규장각
제주(『여재촬요』)	오형묵 (사찬)	1895년	필사본	22.2×17.2	지리지 지도	국립중앙도서관
대정군지도(『대정군 고지』)		1899년	필사본	31.1×45.5	지리지 지도	서울대 규장각
제주지도(『제주읍지』)		1899년	필사본	53.5×100.8	지리지 지도	서울대 규장각
제주지도(『호남읍지』)		1899년	필사본	53.5×100.8	지리지 지도	서울대 규장각
정의지도(『정의군고지』)		1899년	필사본	31.6×40.7	지리지 지도	서울대 규장각
『탐라순력도』	이형상 (관찬)	1702년	필사본	30×47	회화식 지도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도(학산구구 웅첩)	윤제홍 (사찬)	1844년	필사본	58.5×31.0	회화식 지도	개인소장
제주십경화첩		19세기	필사본	52.5×30.5	회화식 지도	국립민속박물관
濟州牧都城之圖		18세기 전 반	필사본	57×36.5	회화식 지도	가회박물관
耽羅都總		18세기	필사본	61×40.5	회화식 지도	국립민속박물관
탐라도(『환영지』)	위백규 (사찬)	1822년	목판본	22×31.5	기타 지도	서울대 규장각
탐모라(『환영지』)	위백규 (사찬)		필사본		기타 지도	국립중앙박물관
탐모라(『지나조선지도』)		18세기	필사본	32.7×21.4	기타 지도	서울대 규장각 규10332
탐라도			필사본	49×60	기타 지도	제주교육박물관
濟州圖			필사본	44×60	기타 지도	제주교육박물관
濟州圖		18세기전반	목판본	35.7×42.0	기타 지도	국립제주박물관

濟州圖		18세기	필사본		기타 지도	제주세계유산본부
濟州圖		18세기	필사본	34×41.5	기타 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제주도(『제주양씨족보』)		1791년	목판본	34.6×22.4	기타 지도	김만덕기념관
毛興洞全圖			필사본		기타 지도	
제주(『海東諸國地圖』)		18세기말	필사본	51.1×32.5	기타 지도	서울대 규장각
목장도형(『삼읍각목장구폐절목』)		1860년	필사본	29.0×42.0	기타 지도	제주대 박물관
탐라방영총람		18세기 후반	필사본	26.0×24.0	기타 지도	개인소장
영주영도초		조선후기	필사본	24×30	기타 지도	제주대 박물관
제주지리도식		조선후기	필사본	27.2×20.2	기타 지도	제주대 박물관
제주고적도(『탐라성주유사』)	홍종시 (사찬)	1900년대초	필사본	26.3×38.6	기타 지도	제주고씨종문회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고지도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내 최대의 고지도 소장처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비롯하여 주로 박물관과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일부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일부 지도는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데, 절첩식으로 되어 있는 대축척 전국지도인 『조선도』는 일본의 오사카부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제주삼현도』의 부분이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⁷⁾

지도의 제작시기를 보면, 일부 지도는 17세기에 제작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18세기, 19세기의 지도들이다. 17세기 이전 시기의 지도는 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육지부의 지도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조선에서는 지도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었고 여러 차례의 전란으로 많은 지도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1434년(세종 17) 안무사 최해산(崔海山) 때에 관부의 실화로 문적이 모두 타버렸다는데⁸⁾ 이로 인해 고려시기, 조선초기 지도들은 남아 있지 않다. 제주도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7) <https://www.loc.gov/resource/g7903cm.gct00153/?sp=1>.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해동지도』에는 전라도편만 있고 나머지 도는 누락되어 있다. 『제주삼현도』도 『탐라지도병서』 계열의 지도만 있다.

8) 이원진, 『탐라지』, 건치연혁.

은 이형상 목사 종가에 소장되었던 목판본 제주도 지도인데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본은 대부분이 필사본 지도이지만 목판본 지도도 몇 종이 있다. 이형상 목사 종가에 소장했던 제주도 지도와 『탐라지도병서』, 『탐라지도』, 족보에 수록된 『제주도』 등이 목판본 지도에 해당한다. 이들 목판본 지도는 제주도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탐라지도병서』는 세로 250cm, 가로 150cm의 대형 목판본 지도로 판목 3장을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대형 목판본 지도는 육지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들은 관청에서 행정이나 국방의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관찬 지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대축척의 제주도 단독지도들은 대부분 관청에서 제작되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도에는 제작자가 명시되지 않는데 일부 지도는 제작자가 표기되어 있다. 『탐라순력도』는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제작한 것이므로 여기에 있는 지도인 「한라장축」 역시 그의 저작임을 알 수 있다. 『탐라지도병서』의 경우도 하단 주기문의 맨 마지막에 ‘康熙己丑正月李等開刊’이란 기록이 있는데, 강희기축년은 1709년이고 당시 제주목사는 이규성이기 때문에 이규성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원조 목사의 지시로 제작된 『탐라지도병지』의 지도 하단에 있는 지문에는 지도를 모사한 사람으로 제주인 고경욱(高敬旭)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들도 있는데 위백규의 『환영지』에 수록된 「탐라도」와 제주양씨 족보에 수록된 『제주도(濟州圖)』 등이 대표적이다. 『환영지』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는 필사본 『환영지』에는 매우 소략한 제주도 지도가 실려 있지만, 목판본 『환영지』의 제주도 지도는 필사본에 비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목판본 『환영지』의 「탐라도」는 필사본의 형태로도 전하고 있는데, 민간의 식자들을 중심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양씨 족보에 수록된 『제주도』도 족보 이외의 단독 목판본으로 제작된 것이 있으며 이를 필사한 지도도 전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소축척의 제주도 지도는 민간을 중심으로 제작되면서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를 지도의 크기와 축척, 양식, 표현 방법 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축척의 단독지도, 군현지도책의 제주도 지도, 전국지도첩(책)의 제주도 지도, 지리지의 제주도 지도, 회화식 지도의 제주도 지도, 기타 지도 등으로 구분된다.⁹⁾ <표1>은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를 유형별로 구분

9) 양보경은 선행 연구에서 조선시대 제주 고지도의 유형을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별지도, 분도(군현지도), 특수도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분도와 특수도 유형이 제주를 단독으로 그린 지도이고 다른 유형은 제주의 단독지도가 아니다. 연구의 대상을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별지도의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연구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게 되어 여기서는 제외했다.

하여 정리한 것으로 각 유형에 속한 지도들은 제작시기 순으로 배열하였다.

대축적 단독지도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주류에 해당한다. 대형 목판본으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사본으로 존재한다. 국가의 행정, 군사적 용도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당대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지도의 내용이 풍부하고 정교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적이다. 제주도 현지에서 제작되었지만 『탐라지도병서』와 같은 지도는 중앙 관부로 보내져 활용되기도 했다.

군현지도책의 제주도 지도는 제주도가 아닌 중앙 관서에서 제작된 것으로 일부 지도는 제주도의 윤곽과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라도의 군현지도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제주도의 세 고을인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구분하여 그리지 않고 제주도 전체를 한 장에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지도첩(책)의 제주도 지도는 전국을 대축적으로 그린 지도첩(책)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이다.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과 같은 김정호의 전국지도뿐만 아니라 『동여도』나 『대동여지도』와 다른 계열의 전국지도첩(책)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대동여지도』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리지의 제주도 지도는 읍지의 부도(附圖)로 그려진 것으로 18세기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 1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제주도 전체를 간략하게 그린 것도 있지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제주읍지』(규10797)에 수록된 「제주지도」처럼 대축적으로 상세하게 그린 것도 있다.¹⁰⁾ 지리지에 지도가 부도로 삽입되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으로 볼 수 있고,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읍지에서 나타난다. 제주도의 경우는 19세기 관찬의 읍지에서 지도를 볼 수 있다.

회화식 제주도 지도는 『탐라십경도』, 『탐라순력도』 등이 대표적이다. 실경화로 그려진 회화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각종의 지리적 사상(事象), 지명 등이 표기되어 있어서 지도의 기능도 지닌다. 『탐라십경도』는 주로 제주의 명승지를 중심으로 그린 것이고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 이형상이 순력의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당시의 지리와 공간 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다.

기타 지도로는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들, 족보에 수록된 지도, 목장지도, 고적이나 관아 배치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간의 제주도 지도는 대부분 소략하게 그려진 것이 주를 이룬다. 실학자 위백규의 저서인 『환영지』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가 대표적이다. 지방에 거주하던 학자의 저서에서 제주도 지도가 수록될 수 있는 것은 제주가 지니는 특수성이

10) 동일한 지도가 『호남읍지』(규12181)에 수록되어 있다.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여타의 다른 섬과는 달리 자연환경이나 역사 문화가 다르고 실제 가보기가 힘든 여건 때문에 이를 지도로 표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다. 제주양씨 족보의 「제주도」, 『탐라방영총람』의 관아 배치도 등도 특수한 제주도 지도에 속한다.

III.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유형별 특성

1. 대축척 단독지도

제주도는 국내 최대의 공마(貢馬) 사육지이며 국방의 요충지로서 여타 지역보다도 중시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조선전기부터 국가 기관에 의해 제주도의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축척의 단독지도는 국가 기관에 의해 정교하게 제작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행정이나 국방의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사용하여 상세한 내용을 수록해야 했다. 관찬 지도의 제작에 관한 기록은 1709년 이규성 목사가 목판으로 간행한 『탐라지도병서』의 서문에서 볼 수 있다. 지도 여백의 서문 가운데 수로(水路)를 기술한 부분에서 구지도(舊地圖)와 신지도(新地圖)를 언급하고 있다.¹¹⁾ 이를 통해 볼 때, 1709년 『탐라지도병서』를 목판으로 만들 당시 이미 두 유형의 지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대축척의 단독지도는 관청에 보관하고 있던 지도들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지도』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해동지도』에는 ‘제주삼현도’라는 두 종의 제주도 지도가 있는데, 「제주삼현도」 두 지도가 모두 인쇄본으로 제작되어 서로 상략(詳略)이 다르다는 언급이 있다.¹²⁾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 가운데 한 지도는 『탐라지도병서』를 축소한 지도고 또 다른 「제주삼현도」는 윤곽의 왜곡이 심한 전혀 다른 형태의 지도이다. 따라서 이들 지도가 모두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주도의 지도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가 국방의 요충지이며 국내 최대의 목마장이라는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선전기부터 축적되어 온 출판, 인쇄의 문화적 역량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제주목을 중심으로 유학 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서적을 간행하여 이

11) 『耽羅地圖并序』, 水路 舊地圖云 自濟州距海倉九百餘里 新地圖云 自禾北抵甫吉島一百十里 既不得尺量水路 則指言其里未得其祥 而自濟州距海倉也 甫吉島幾過其半 則不下四百餘里

12) 『해동지도』 「제주삼현도」 耽羅兩地圖 皆是本邑印本 而詳略不同 并存以備參考

용하였는데(윤봉택, 2007),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도제작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지도제작은 최고위 관료인 제주목사가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도제작만을 담당했던 특정 부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주목사의 하명에 따라 화공과 같은 전문인력이 제작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익태 제주목사는 1696년 제주의 경승지를 탐방하고 화가로 하여금 이를 그리게 하여 『탐라십경도』라는 회화식 지도를 제작했다.¹³⁾ 이형상 목사도 1703년 회화식 지도인 『탐라순력도』를 제작하였는데, 제작의 실무는 그림은 화공(畫工) 김남길이 글씨는 오씨 노인이 담당했다.¹⁴⁾

관찬 지도제작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19세기에 이원조(李源祚) 목사가 제작한 『탐라지도병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원조(1792-1871)는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이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다음은 기록의 일부인데, 관찬지도 제작의 목적, 제작과정, 지도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탐라지도는 옛날에 판각(板刻)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닳아 헤어지고 크기도 커서 병풍이나 족자로 만들기에 불편했다. 제주사람 고경욱(高敬旭)이라는 자가 영주십경(瀛洲十景)을 잘 그린다고 해서 옛날 목판본 지도를 모사하도록 했다. 규격은 전에 것에 비해 3분의 1로 줄이고 방리와 촌명, 언덕과 시내 중 이름이 없는 것은 생략하여 번잡함을 제거하고 간단하게 했다. 목을 채색으로 바꾸니 보기에 편하다. 족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았다. 바다가 널리 펼쳐져 있고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다. 망루와 성곽의 배열, 민간의 가옥들과 포구의 방수하는 곳, 월삭(月朔)으로 진현하는 수(數), 해외 여러 나라의 방향과 원근 등을 한눈으로 보아 알 수 있으니 와유(臥遊)할 수 있는 자료이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¹⁵⁾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원조는 그림을 잘 그리는 고경욱을 시켜 당시까지 전해오던 『탐라지도병서』를 축소 모사하도록 했다. 『탐라지도병서』는 대축척의 자세한 지도로 오히려 열람하기에 번잡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관부에 소장되어 있던 이전 시기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관찬지도의 제작은 관부에 소장된 이전 시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찬지도 제작의 일차적인 목적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있었다.

대축척 단독지도에 속하는 것으로는 이형상 목사 종가 소장 목판본 제주도 지도와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¹⁶⁾, 『탐라지도병서』, 『제주삼읍도총지도』, 『영주산대총도』, 목

13) 이익태, 『지영록』, 耽羅十景圖序

14) 이형상, 『탐라순력도』, 서문.

15) 이원조, 『탐라지도병지』

16) 『탐라순력도』에 수록된 「한라장축」은 회화식 지도첩에 수록되어 있지만 형태와 내용은 도면식 지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축척 단독지도의 유형으로 분류했고, 『탐라순력도』의 다른 그림들은

판본 『탐라지도』, 『제주삼읍전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크게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목판본은 이형상 목사 종가 소장의 제주도 지도, 『탐라지도병서』, 『탐라지도』 등이고, 필사본은 『영주산대총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등이다.

목판본 관찬지도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이형상 목사 종가에 소장되었던 제주도 지도이다. 이형상은 1702년에서 1703년에 걸쳐 제주목사로 재직했는데, 이 때 제주에 있던 지도를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간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 영천시에 있는 이형상 목사 종택에 소장되다가 최근 제주시청에서 구입하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지도는 세로 145cm, 가로 105cm로 지도 상단에 지지 기록이 있다. 지도 상단의 기록에는 동해방호소(東海防護所)가 없는데 1678년 목사 윤창형(尹昌亨)이 동해방호소를 혁파했기 때문에 이 지도는 최소한 1678년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안에 서원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1576년에 창건된 충암묘가 굴림서원으로 승격된 것이 1682년(숙종 8)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682년에서 1702년 사이인 17세기 말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제주도의 단독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고 인쇄본 지도로도 가장 오래된 것이 된다.

지도는 남쪽이 상단으로 배치되어 있고, 남해안 지역과 제주와 전라도 사이의 여러 섬들이 그려져 있다. 바다에는 조선전기 전도 유형에서 볼 수 있는 파도무늬가 새겨져 있다. 제주도 지역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들과 목장의 분포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외에 방호소, 봉수(望), 해안가의 연대, 포구와 촌락, 과원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고을간 경계도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 상단에는 제주도의 대략적인 현황과 삼읍지방의 성지노정기(城池路程記)가 수록되어 지지와 지도가 결합된 양식으로 되어 있다.

『탐라지도병서』는 1709년에 제작된 목판본 지도로 간기(刊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지도의 제작자는 1707년 부임하여 1709년 5월에 이임한 이규성(李奎成)으로 추정된다. 세로250cm, 가로150cm 대형의 지도로 상단과 하단에 지지적인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중간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세 장의 목판을 위 아래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 수록된 내용이 매우 자세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후대에 제작되는 많은 지도들이 이 지도를 기본도로 삼았을 만큼 영향력이 컸던 지도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도 하단의 기록에 신지도, 구지도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존

회화식 지도 유형으로 분류했다.

재하던 여러 종류의 제주 지도를 기본 자료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최신의 정보들이 수록되기도 했는데, 1702년 목사 이형상이 삼성묘(三姓廟)를 가락천 동쪽에 옮겨 세운 것과 1704년 목사 송정규(宋廷奎)가 계청하여 목장을 축조함에 20소(所) 60둔(屯)을 합하여 10소로 정한 사실, 1706년 목사 송정규가 서산장(西山場)을 축조하고 공마(貢馬)를 포구로 내릴 때의 목장으로 삼은 사실 등이 지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탐라지도병서』는 18세기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이며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널리 유포된 지도로 이후의 지도들도 이를 모사한 지도가 많다. 송실대 소장의 『제주지도』는 『탐라지도병서』를 필사한 대형의 지도로 필사한 품격은 다소 떨어진다. 18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에도 『탐라지도병서』 계열의 지도가 「제주삼현도」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송실대 소장의 지도에 비해서 규격은 작지만 필사의 상태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채색되어져 있다.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도병지』도 『탐라지도병서』를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탐라지도병서』는 중앙 조정에 보관되어 국가적 차원의 군현지도 편찬에서도 기본도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계보에 속하는 지도들은 제주도의 모습이 비교적 실제에 가깝게 그려져 있고 읍치(邑治), 방호소(防護所), 각 촌락, 중산간의 목장 지대, 임수(林藪), 포구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 유형의 지도는 행정, 군사 등 실용적 차원에서 관에서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872년 조선왕조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지도제작 사업이 행해졌는데, 이 때 제작된 『제주삼읍전도』도 이 유형에 속하는 지도로 볼 수 있다.





관찬의 대축척 목판본 지도의 계열에 속하는 또 다른 지도는 1706년에 제작된 『탐라지도』를 들 수 있다.¹⁷⁾ 이 지도는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 가운데 지도의 제작 형식이 가장 독특한 지도로 평가된다. 지도는 10리 방격(方格)과 한라산 중심에서 뻗어가는 방사선의 방위선을 결합하여 그려졌다. 이러한 작도 방식은 현존하는 한국 고지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지도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도 여백에는 다양한 주기문을 수록하여 지도와 지지를 결합하는 양식을 띠고 있다. 주기문은 제주도의 개관, 주변 지역, 명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탐라지도병서」에 있는 것들이다.

「탐라지도」는 「탐라지도병서」에 비해 소축척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록된 내용은 비

17) 이 지도는 이찬 교수의 논문에 의해 최초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이후 행방을 못 찾다가 최근 경희대학교 해정박물관에 소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판본이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康熙丙戌刻’이라는 간기가 있지만 두 지도의 내용은 동일하다.

교적 소략하다. 자연적 요소로는 한라산, 오름 등의 산지, 하천, 그리고 수목이 울창한 곳 자왈 지대가 그려져 있다. 특히 백록담이 있는 한라산의 모습이 강조되어 그려져 있고,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해안으로 뻗어가는 숲 지대인 지금의 선흘곶자왈, 화순곶자왈, 무릉곶자왈 등이 부각되어 있다. 인문적 요소로는 취락, 군사시설, 목마장 등이 그려져 있다.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등의 읍치는 읍성의 모습과 함께 그려져 있다. 지도의 모든 지역을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기 때문에 읍치만을 확대하여 그리지는 않았다. 촌락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게 수록되었다. 중산간 지역의 교래촌, 송당촌을 비롯하여 해안 지역에 위치한 신촌, 우둔촌 등을 제외하면 마을 지명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해안의 포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오상학, 2016).

	
<p>목판본 제주도 지도(제주세계유산본부)</p>	<p>한라장축(제주세계유산본부)</p>
	
<p>탐라지도(경희대 혜정박물관)</p>	<p>탐라지도병서(국립제주박물관)</p>

	
영주산대총도(국립고궁박물관)	제주삼읍도총지도(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삼읍전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탐라지도병지(개인 소장)

[그림 1] 대축척 단독지도의 제주도 지도

대축척 단독지도 유형에는 필사본도 다수 전하고 있다. 목판본의 경우 다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필사본은 여러 장을 동시에 제작하기는 어렵지만 최신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채색을 사용하여 시각적 표현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도로 가장 오래된 것은 『탐라순력도』에 수록된 「한라장축」이다. 이 지도는 1703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그림첩에 수록된 필사본 지도로 집에 보관되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목판본의 제주도 지도처럼 널리 유포될 수 없었다. 지도의 규격은 첩에 수록되어 있어서 세로 47cm, 가로 30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 지도로는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어 사실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지도로 평가된다.

「한라장축」의 제주도 부분은 비교적 당시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주목을 비롯한 정의현, 대정현의 읍치와 해안을 둘러가면서 설치되어 있는 방호소(防護所)는 홍색으로 강조하여 그렸다. 또한 세 고을의 경계도 홍선으로 그려 넣은 점이 이채롭다. 해안 지역

과 중산간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마을 이름들도 비교적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하단 여백에는 지도의 제작시기와 당시 지방관의 이름, 도리(道里)와 면적, 그리고 각 방위를 따라 도달하는 지역까지의 거리수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도면에서 빠진 정보들을 보충하여 한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동양의 지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다. 즉, 시각적 표현인 지도와 텍스트인 문장이 결합된 형태로, 고도로 추상화된 기호체계로 표현되는 현대지도와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주산대총도』도 필사본으로 제작된 관찬의 대축척 지도이다. 한라산의 별칭인 ‘영주산’을 지도의 제목으로 삼아 제주가 삼신산이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다. 제작 시기는 삼성묘와 향교가 성안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도 상단에 ‘신축(辛丑)’이라는 제작년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1721년에 해당한다. 제작된 장소도 명기되어 있는데 ‘하포소(下浦所)’라고 되어 있다. 조천방호소 또는 화북방호소에서 지방 화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는 필사의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바다의 수파묘, 배의 모습, 한라산, 산방산, 우도 등의 표현이 회화적 기법을 가미하고 있다. 3읍, 9진을 비롯하여 목마장, 촌락, 포구, 도로 등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목마장에는 산마장의 말을 몰아 점검하던 장소도 표시되어 있다. 군사 항목으로 봉수와 더불어 해안가의 연대도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열녀비와 같은 문화적 항목도 수록되어 있다. 김녕원, 의귀원 등의 원(院)도 표시되어 있다. 산방산이나 우도의 표현은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와 유사하여 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8세기 전반 제주의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로 평가된다.

『제주삼읍도총지도』는 다른 필사본 지도와 다른 독특한 성격의 대축척 단독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1734년 정도원(鄭道元) 목사가 남문 밖으로 이전한 사직단이 표시되어 있고, 1754년 남문 밖 광양 땅으로 이전되는 향교가 성안에 그려져 있어서 대략 1734년에서 175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로122cm, 가로119.5cm의 규격으로 지도의 배치는 앞의 지도들과 동일하게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하였고 주변으로는 간지(干支)로 된 24방위를 배치하였다.

전체적인 지도의 윤곽은 제주목 관아가 있는 해안이 만의 형태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지도에 수록된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특히 한라산과 여기에서 뻗어 내린 임수(林藪), 주변의 오름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한라산의 모습이 다른 지도에 비해 강렬하게 표현된 점이 특징적인데, 백록담뿐만 아니라 영실의 기암

절벽까지도 묘사되어 있다. 다른 지도에 비해 한라산 중심부의 지명이 상세하게 수록된 점이 특징적이다.

무엇보다 이 지도에는 목장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중산간에 포진되어 있는 10소장과 더불어 천미장, 모동장 등의 우목장도 그려져 있다. 또한 각 소장에는 비를 피하던 곳인 피우가(避雨家)와 물을 먹이던 수처(水處)도 그려져 있고 잣성에 있는 출입문도 표시되어 있다. 특히 산마장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구마(驅馬)할 때 사용되었던 원미장(尾圓場), 사장(蛇場), 두원장(頭圓場) 등의 시설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산마장에서 키운 말을 진공하기 위해 한쪽으로 몰아 점마하던 시설이다. 두원장으로 말을 몰아서 길게 이어진 사장으로 말을 한 마리씩 보내어 말의 등급을 매긴 후 미원장으로 집결시킨다. 이와 같은 시설은 1703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 「산장구마」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제주삼읍전도』는 1872년 조선왕조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진 전국적 규모의 군현지도 제작사업 때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도 전도와 더불어 제주, 정의, 대정의 고을로 분리하여 그린 분도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 지도의 규격은 세로69cm, 가로109cm로 비교적 큰 편에 해당한다. 지도는 육지부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 남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위에 간지(干支)로 된 24방위를 배치한 점이 독특하다. 제주도와 같이 육지부에 인접한 섬이 아닌 경우에는 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방위와 주변 지역을 일부 그려 넣기도 했다. 남쪽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안남국(安南國), 섬라(暹羅), 만랄가(滿刺加), 점성(占城) 등의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그려져 있다.

기생화산인 오름의 모습을 자세히 그렸고 중산간 지대에는 10개의 목마장을 경계와 함께 표시하였다. 각 면에 소속된 마을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인접한 면과 구분한 점도 다른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점이다. 군현의 이름과 해안의 진명(鎭名)이 붉은 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되었다. 특히 해안의 봉수대와 포구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한라산의 영실에는 많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오백장군이 그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제주지도 가운데 가장 정제되고 실재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된 지도라 할 수 있다.


2. 군현지도책의 제주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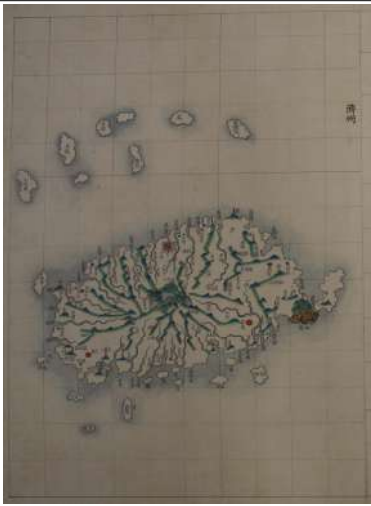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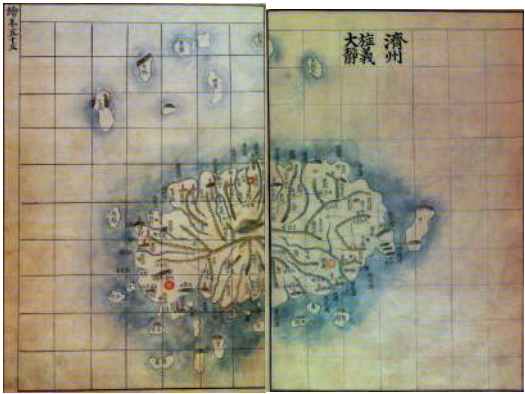
대축척 단독지도와 더불어 다른 한편의 계보를 이루는 지도는 대형의 낱장 지도가 아닌 군현지도책에 수록된 형태로 존재한다. 18세기에 접어들어 조선에서는 각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제작이 중앙 관청의 주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군현지도책은 이러한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군현지도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지방에서 수합된 지도를 바탕으로 중앙에서 제작한 것과 중앙에서 제작된 대형 전도나 도별도를 바탕으로 군현별로 나눠 그려서 책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다. 전자의 유형에는 방격이 없고 후자의 유형에는 방격이 있는 경우가 많다.

방격이 없는 군현지도책의 제주도 지도에도 크게 두 유형이 존재하는데, 『탐라지도병서』를 따르는 유형과 제주도의 모습이 감자처럼 뭉툭하게 표현된 것이 그것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해동지도』에는 「제주삼현도」라는 제목으로 두 유형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전자의 것은 제주도의 모습이 비교적 실제에 가깝게 그려져 있고 읍치, 방호소, 각 촌락, 중산간의 목장 지대, 임수(林藪), 포구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본토의 남해안 사이에 산재한 여러 도서들, 중국, 일본, 유구국 등의 외국지명도 방위의 왜곡이 덜한 편이다. 그리고 읍성을 비롯한 군사기지, 포구, 목장 등의 모습에서도 거의 동일한 축척을 유지하고 있는 보다 사실적인 지도의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지도는 행정, 군사 등 실용적 차원에서 관에서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국회도서관에도 『해동지도』의 전라도편에 「제주삼현도」의 필사본이 수록되어 있다.

	
<p>『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p>	<p>『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p>

	
『전라남북도여지도』의 제주(영남대 박물관)	『여지도』의 제주(국립중앙도서관)
	
『지도』의 제주도 지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해동여지도』의 제주도 지도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2] 군현지도책의 제주도 지도

후자의 것은 전자에 비해서 규격도 작고 제주도의 모습도 동서로 압축되어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성곽으로 이루어진 읍치와 방호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조되어 크게 그려져 있는데 관아 건물도 매우 상세하다. 수려한 경관을 지닌 성산 일출봉, 산방산, 송악산 등이 크게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홍살문을 그려 열녀문과 효자문을 표시하였고 정자와 사우(祠宇) 등도 그려 넣어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제주도 주변의 도서나 남해안 지역, 그리고 중국·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지명들은 거리 관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려져 있어서 『탐라지도병서』의 유형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진다.

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각각의 지도가 제작되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제작의 의도가 달랐던 데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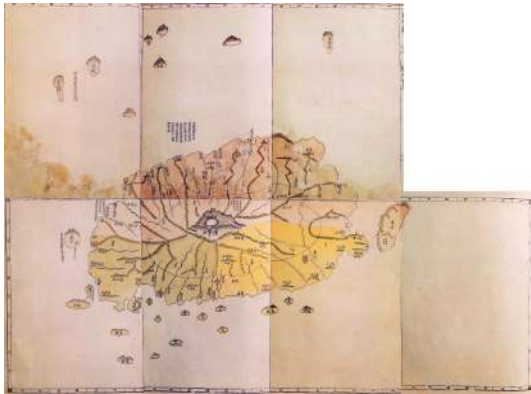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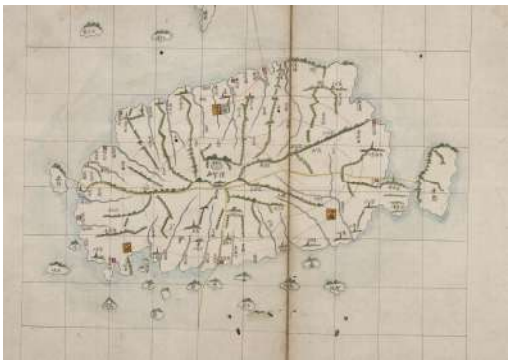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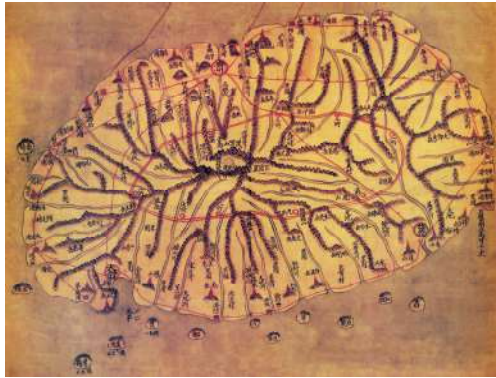
이 유형의 지도는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전라남북도여지도』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여지도』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가 대표적이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윤곽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유형의 지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필사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오류도 보인다. 남쪽 대정현의 동해소(東海所)가 이미 혁파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려져 있고 대정현의 향교가 1653년 이원진 목사에 의해 단산(簾山)으로 이설되는데 여전히 옮겨가기 전 위치에 있다. 특히 서귀소는 위쪽에 있다가 바닷가 쪽으로 1590년에 이전되는데 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전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성곽의 모양으로 그려졌던 구서귀소의 모습이 오목한 만으로 그리고 배까지도 그려 넣었다. 필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도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17세기 중반경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이 지도는 17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목판본 지도를 그대로 필사한 제주지도의 계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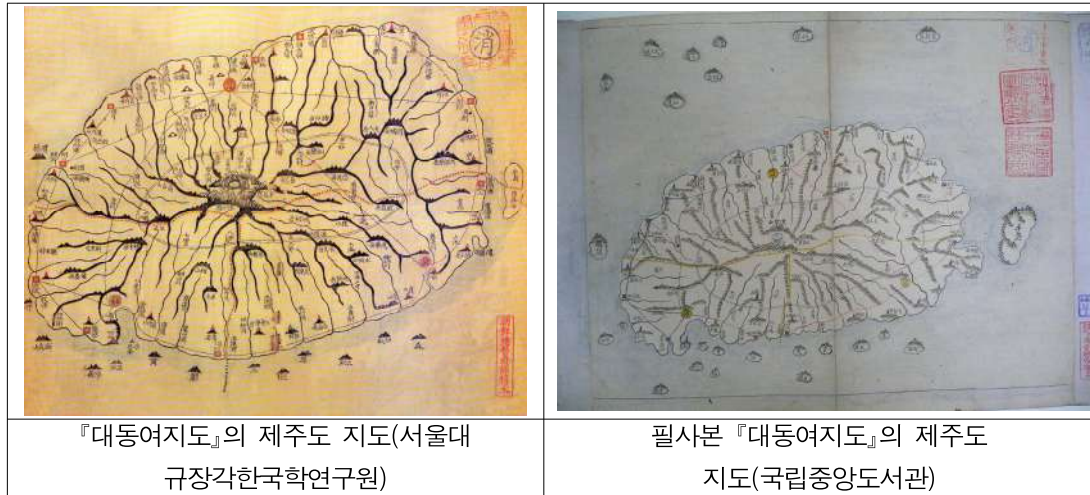
군현지도책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 가운데 또 다른 유형은 방격이 그려진 것이다. 방격이 그려진 군현지도는 거리와 방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되는데, 지도에 표현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축척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감자 모양의 제주도 지도에서는 제주성이 크게 과장되어 표현되는데, 방격이 그려진 제주도 지도에서는 제주성이 작게 처리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해동여지도』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와 한 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지도』의 제주도 지도를 비교하면 제주도의 윤곽이나 섬의 위치, 수록된 내용 등이 대동소이하여 같은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유형의 지도와 달리 방위도 북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는데, 대형 전도를 바탕으로 군현지도를 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된 것이다.

방격이 그려진 제주도 지도는 제주도의 단독 지도를 바탕으로 그려지지 않고 대형 전도를 토대로 그려졌기 때문에 앞서의 두 유형의 지도보다 수록된 정보가 적다. 한라산을 비롯한 오름과 하천 등의 자연지형, 방호소, 봉수, 목마장, 주요 포구 등의 인문정보가 수록된 정도인데 앞선 두 유형의 지도에 빼곡하게 표시된 마을 이름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군사적, 행정적 목적이 강한 지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전국지도첩(책)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

이 유형에 속하는 지도는 제주도만을 단독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전국을 그린 대축척 지도에 수록된 지도이다. 첩이나 책의 형태로 존재하며 조선전도나 도별도에 그려진 제주도보다 훨씬 대축척으로 그려져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도로는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동여비고』,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동여』,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 소장의 『조선도』, 김정호의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p>『동여비고』의 제주도 지도(개인 소장)</p>	<p>『청구도』의 제주도 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p>
	
<p>『동여』의 제주도 지도(국립중앙박물관)</p>	<p>『동여도』의 제주도 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p>



[그림 3] 대축척 전국지도의 제주도 지도

『동여비고』는 도성도(都城圖) 중에서 경덕궁이나 소덕문으로 표기된 점과 1711년에 축조된 북한산성 등의 표시가 없는 점, 또 강화도 돈대의 숫자와 경상도 북부 주현도에 순흥부(順興府)의 표시가 없는 점을 중시하여 1682년(숙종 8)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⁸⁾ 지도에 표시된 것은 읍지의 고적(古蹟) 항목에 표시된 항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사찰의 분포가 상세하다. 지금의 제주시 지역에 달노화적부(達魯花赤府, 다루가치)와 군민무사부(軍民撫使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1273년에 설치된 탐라총관부를 말한다.

제주도 지도는 전체적인 모습이 감자처럼 둥글게 그려져 있으며, 지도의 내용도 이후의 지도에 비해 왜곡이 심하다. 제주, 정의, 대정의 세 고을의 표시가 부각되어 있지만 고려시대의 속현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조선전기에 혁파된 사찰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름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지만 위치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 제주목의 치소에 있었던 관덕정이 한라산 기슭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중산간에 설치되어 있었던 목마장이나 해안 주위에 있었던 방호소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도에 표시된 것은 읍지의 고적 항목에 수록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역사부도적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최소한 조선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이기도 하다. 이 지도와 동일한 유형의 사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조선강역총도』라는 명칭으로 소장되어 있고, 같은 유형이지만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지도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지나조선고지도』가 있다. 아울러 지도첩의 성격은 다르지만 동일 유형의 지도가 「탐라전도」라는 이름으로 영남

18) 이상태(1998), 『東輿備攷』 解題, 『東輿備攷』, 경북대학교 출판부.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고지도첩』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지도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본과 영남대학교 박물관본에는 고려시대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으로 알려진 서산(瑞山)이 비양도 옆에 그려져 있다.

대축척 전국지도는 18세기 중엽 정상기의 『동국대전도』가 제작되면서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후 더욱 정교한 대축척 전도가 제작되면서 이를 첩이나 책의 형식으로 제작한 대축척 전국지도가 탄생되었다. 이전의 군현지도책과 다른 점은 군현별로 지도가 분리되지 않고 전국을 가로 세로로 구획하여 구획된 도면 안에 여러 군현을 수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지도는 19세기에도 계속 제작되면서 김정호의 지도에 이르게 된다.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의 『조선도』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여』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1834년에 제작된 김정호의 『청구도』는 책으로 제작된 대축척 전국지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20여종의 사본이 전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는 더욱 정제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거의 실재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고 내부에 표시되는 지명도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중요한 항목들만 선택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방호소, 봉수 등의 군사시설과 공마와 관련된 목마장, 진공(進貢)과 관련된 과원, 재정 자원을 보관하는 창고와 주요 포구들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특히 이 지도에서는 단독의 제주도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산지의 표현방식이 나타난다. 즉, 이전의 개별 제주지도에서는 측화산인 오름들을 독립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체계에 따라 각 오름들도 연맥식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방호소, 창고, 과원, 읍치, 봉수 등의 항목도 기호를 사용하여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회화적 형식을 지양하여 보다 정제된 지도학적 표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축척 전도의 발달과 기존에 구축된 제주 지도의 다양한 제작 경험을 통해 이룩되었음은 물론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동여』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도 이 유형에 속하는데, 방격이 그려진 점이 『청구도』의 것과 다르다. 지도에 수록된 내용은 방격식 군현지도책에 수록된 것과 유사하여 같은 계열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여』의 제주도 지도는 여러 차례 전사되면서 지명의 오류도 보이는데, ‘천제담(天帝潭)’을 ‘천제포(天帝浦)’, ‘고둔촌(羔屯村)’을 ‘고둔산(羔屯山)’로 표기했다. 『해동여지도』보다 늦은 19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었다 보니 전사 과정의 오류가 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단독으로 그려진 지도는 앞서 제작되었던 지도들을 모사하는 경향이 많은데 반해, 1861년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 지도책에 수록된 제주 지도는 김정호의 독특한 지도학적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거의 실재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고 내부에 표시되는 지명도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군사 행정적으로 중요한

항목들만 선택적으로 수록하였다. 즉, 방호소·봉수 등의 군사시설과 공마와 목마장 등이 중요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목판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범례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지도에도 봉수, 역원, 진보, 목장 등이 기호로 표현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다른 지도에서 잘 볼 수 없는 도로가 그려져 있는데, 10리마다 점을 찍어 대략적인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선으로 그려진 하천과 구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선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개별 제주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산지의 표현방식이 나타난다. 즉, 이전의 개별 제주지도에서는 기생화산인 오름들을 독립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체계에 따라 각 오름들도 연맥식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물론 이전 시기의 『청구도』나 『동여』 등의 제주도 지도에도 연맥식 방법을 볼 수 있지만 『대동여지도』의 제주도 지도에는 삼각형 모양의 산봉우리와 줄기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한라산의 산정부에는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혈망봉(穴望峰)과 십성대(十星垓)가 표시되어 있다. 혈망봉은 백록담 분화구에서 남쪽에 있는 봉우리인데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십성대는 영실에 있는 칠성대(七星臺)의 오기로 보이는데, 필사본 『동여도』에도 십성대로 표기되어 있다. 제주도 남쪽에 그려진 해안의 섬들은 삼도(森島)가 지귀도(知歸島)의 동쪽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위치와 방위에서 잘못 그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오류들은 김정호가 현지 측량에 의해 지도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하다 보니 나타나는 오류라 할 수 있다.

4. 지리지의 제주도 지도

지리지에서도 제주도 지도를 볼 수 있다. 원래 지리지는 텍스트로 구성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조선후기의 『여지도서』 등에 부도의 형태로 지도가 수록되었다. 18세기 이후 편찬되는 다양한 읍지에는 그 지역의 지도가 삽입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지리지에 수록되는 지도는 지리지의 부도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독의 군현지도에 비해 소략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목판본 지리지의 경우 수록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사본보다 소략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제주읍지』(1793년 편찬)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는 필사본이지만 아주 소략하게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지도의 제작자가 가장 중시하는 내용 위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당시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지도는 남쪽을 상단으로 배치하고 가운데에 한라산을 크게 그려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라산 이외의 오름이나 하천 등은 전혀 그려져 있지 않다. 인문적 요소들은 세 고을의 읍성과 9진

성, 목마장인 10소장이 표시된 것이 전부이다. 제주도가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조선 최대의 목마장으로 중시되던 중앙 정부의 시각을 볼 수 있다.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지만 단독의 제주도 지도 못지않게 상세하게 그려진 것도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제주읍지』에 수록된 「제주지도」가 대표적이다.¹⁹⁾ 이 지도는 1899년(광무3) 5월에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제주읍지』에 수록되어 있다. 지도에는 1895년 행정구역이 모두 군으로 변경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읍지에 첨부된 지도이지만 규격이나 수록된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이전 시기 독립된 형태의 제주도 지도에서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전 지도에서 보이는 24방위 표시나 외국 지명들과 남해안, 그리고 그 사이의 섬들은 제외되어 있다.

『제주읍지』의 제주도 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주읍지』의 제주도 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여재촬요』의 제주 지도 (국립중앙도서관)	『정의읍고지』의 정의지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4] 지리지의 제주도 지도

19) 이 지도와 동일한 지도가 『호남읍지』(규12181)에도 실려 있다.

중앙부의 한라산은 풍수지도인 산도(山圖)처럼 맥세를 강렬하게 표현하면서도 독립된 형태의 오름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한라산의 중앙부에는 백록담을 별처럼 표현하였고, 분화구 상에 있는 동암과 서암도 그려 넣었다. 영실에는 오백장군 대신에 천불암이 그려져 있다. 한라산의 북사면에는 예전에 있었던 연대가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의 의항(개미목)은 잘록하게 표현된 것이 이채롭다. 어승생악은 어승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목장이었던 10소장의 경계가 상жат성과 하жат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그려진 점이 이전 지도와 다르다. 1소장에서 10소장에 이르는 목마장과 산장, 그리고 갑마장의 경계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하천도 상세하게 그렸는데 군 경계와 구분하기 위해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중산간을 경유하는 도로는 그려져 있지 않으나, 원(院) 취락이었던 원동(院洞)이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표시되어 있다.

목장의 상жат성 위쪽으로도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홉 군데에 화전동(火田洞)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 뒤의 읍지 본문에 화전세를 수세하던 기록이 있어 산장이 있던 곳에 화전촌이 형성되어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10소장과 자목장 체제로 이어져 내려왔던 제주도의 마정은 1895년(고종32) 지나친 공마(貢馬)와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공마제를 혁파하고 돈으로 바꾸어 상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국영목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도에 표시된 화전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마장에서부터 화전의 개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오상학, 2004).



읍지 이외에 전국지리지에서도 제주도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오형묵이 저술한 『여재촬요』의 지도가 대표적이다. 『여재촬요』는 1894년 10권 10책의 필사본으로 편찬되었고, 이어 5책, 2책 등으로 축약본이 저술되었다가 1896년 학부에서 1권으로 축약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10권으로 구성된 필사본 가운데 제1권은 세계지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제2권에서 10권까지는 한국지리와 관련된 것으로 팔도의 군현읍지를 수록한 것이다(임은진, 서태열, 20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여재촬요』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를 보면, 다른 제주도 지도와 달리 동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이는 동서 방향이 긴 제주의 형세 때문에 판형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위를 조정한 것이다. 지도의 내용은 경위선 표식 군현지도책에 수록된 지도와 유사한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해동여지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지도』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와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유형의 지도를 바탕으로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책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에 대정현에 있는 ‘형제(兄弟)’섬이 전사의 오류로 ‘구제(九弟)’섬으로 표기되었는데, 『여재촬

요』의 제주 지도에서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5. 회화식 제주도 지도

조선시대의 지도는 회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제작의 주체나 제작 도구, 양식 등을 서로 공유한다(오상학, 2015). 특히 실경을 그린 산수화나 명승지를 그린 그림에서 공간적 관계가 잘 표현되고 지명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회화식 지도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의 대표적인 것은 『탐라십경도』와 『탐라순력도』를 들 수 있다.

『탐라십경도』는 이익태 목사가 1694년(숙종 20)에 제주도를 두루 다니면서 경치가 가장 뛰어난 열 곳을 가려 화가에게 그리게 하여 병풍으로 제작한 것으로 각 그림지도의 상단에는 해당 지역의 설명을 수록하였다. 그가 꼽은 제주의 10경은 「조천관」, 「별방소」, 「명월소」, 「성산」, 「백록담」, 「영곡」, 「산방」, 「서귀소」, 「천지연」, 「취병담」 등이다. 이익태 목사가 제작한 『탐라십경도』의 원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후대의 사본들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에 소장된 사본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제주십경화첩』 등이 대표적이다. 후대의 사본들은 전체적인 구도, 지명 등이 일치하여 같은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최근 홍콩 경매에서는 탐라십경도에 「제주목도성지도」, 「화북진」이 추가되어 12폭으로 이루어진 제주십경도가 출품되었는데, 『탐라십경도』의 후대 사본으로 추정된다.²⁰⁾

	
제주목도성지도(개인 소장)	탐라도총(국립민속박물관)

20) 아시아경제, 「홍콩서 해외 소장 우리 고미술품, 한국 추상화 경매」, 2015년 5월 19일.

	
<p>『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제주세계유산본부)</p>	<p>『탐라십경도』의 「취병담」(국립민속박물관)</p>

[그림 5] 회화식 지도의 제주도 지도

『탐라십경도』는 그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경을 그린 것으로 지명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백록담」 그림지도를 보면 백록담 주변의 지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파도 무늬가 그려진 백록담에는 물을 먹는 사슴과 활을 쏘는 사냥꾼, 그리고 전설에 나오는 흰 사슴을 탄 노인의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백록담의 남쪽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기우단이 그려져 있다. 백록담의 화구에는 구멍이 뚫려있는 바위인 혈석과 곧게 서있는 바위인 입석이 그려져 있다. 여기의 혈석을 혈망봉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나 혈망봉은 남쪽에 있는 것이어서 위치상 서로 다르다. 백록담의 북사면으로는 구봉암이 그려져 있는데, 모습이 왕관과 같아서 왕관바위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왕관릉이다. 그림에도 흡사 왕관처럼 그려져 있다.

『탐라십경도』 계열에 속하는 지도 가운데 하나는 『제주목도성지도』이다. 『탐라십경도』 원도에는 없던 지도로 『탐라십경도』 후대 사본에 첨가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1702년에 건립된 삼성묘가 동문 안쪽에 있고, 1720년 정동후(鄭東後) 목사가 연무정 북쪽에 있던 사직단을 서문 밖에 설치했다가 1734년 정도원(鄭道元) 목사가 남문 밖으로 이전한 사직단이 성곽 서북쪽에 표시된 것으로 보아 1720년에서 173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 가운데 제주성의 모습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도의 명칭에는 제주성을 ‘도성(都城)’이라 표기하여 과거 탐라국의 도성임을 드러내고 있다.

지도 상단의 주기에 제주성이 과거 탐라국의 고랑부 삼을라가 분거했던 곳임을 밝혀놓

있다. 제주의 연혁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고 성 둘레가 15,489척, 동서남의 성문과 남북 수구의 홍문(虹門)이 있다고 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지도에는 제주성 안의 관아 건물과 향교뿐만 아니라 성곽 위에 축조된 정자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탐라십경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회화식 지도라 할 수 있는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와 병마수군절제사의 관직을 제수받은 이형상이 1702년 순력을 마친 후, 순력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에 완성한 그림첩이다. 여기에는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을 비롯하여 전체 41면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다양한 순력의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그림첩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탐라순력도』는 서두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력의 장면을 그린 기록화적 성격을 지닌 그림들이다. 이러한 그림은 행사의 구체적인 실상을 사실적으로 포착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제주도 전체의 형세를 보여주는 지도인 「한라장축」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순력도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졌지만 행사가 행해지는 공간적인 모습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는 회화식 지도의 범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장구마」라는 그림은 한라산 산마장에서 키우던 말들을 한 곳으로 모아 봉진할 말을 선별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위로는 성판악으로부터 아래로 교래리 일대로 이어진 지역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곳곳에 산재한 오름들과 주변에 형성된 숲들도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성판악 주변으로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물참오름, 물영아리오름에는 ‘유수(有水)’라 표기하여 분화구에 물이 있음을 나타냈다. 팽목동산에는 팽나무의 모습을 독특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산굼부리는 산구음부리악(山仇音夫里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주도 마정의 책임자인 감목관은 교래리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패와 궐패를 봉안하여 예를 올리던 객사도 그려져 있다.

6. 기타의 제주도 지도

앞에 언급한 유형 이외에도 민간의 지식인이 제작한 제주도 지도, 족보에 수록된 지도, 『탐라방영총람』처럼 관청의 배치를 표시한 지도, 풍수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의 지식인이 제작한 지도로는 위백규의 『환영지』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가 대표적이다. 현존하는 독립된 제주지도들이 대부분 관에 의해 제주도 현지에서 제작한 상세한 지도인데 반해, 이 지도는 민간에서 개인이 제작한 것으로 당시 육지부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의 제주인식을 엿볼 수 있다. 『환영지』는 18세기 호남의 삼대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대표적인 저서로, 조선 팔도 및 중국, 일본, 유구

의 지도와 지지, 천문, 제도 등을 기록한 책이다. 위백규는 본래 1770년에 『환영지』를 간행했는데, 현존하는 목판본 『환영지』는 1822년에 종손 위영복(魏營馥)이 편찬한 것이다. 필사본 『환영지』도 현존하는데, 필사본 『환영지』에 수록된 탐라지도는 매우 소략하다.

	
『환영지』의 「탐라도」(제주대 박물관)	제주도(제주세계유산본부)
	
제주도(국립제주박물관)	탐라방영총람(개인 소장)
	
『삼읍각목장구폐절목』의 목장도형 (제주대 박물관)	『영주영도초』의 풍수지도(제주대 박물관)

[그림 6] 기타 다양한 제주도 지도

「탐라도」는 대형의 단독 제주지도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지도의 외곽에는 간지로 된 방위가 표시되어 있다. 제주도 주변에는 일본, 동남아, 중국 등의 외국 지명과 남해안의 여러 섬들이 그려져 있다. 바다에는 물결무늬를 그려 놓았다. 이러한 구도와 양식은 『탐라지도병서』와 유사한데, 그를 참조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내용은 『탐라지도병서』류에 비하면 매우 소략하다.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의 고을 표시와 산지와 하천, 북쪽 지역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포구가 표기된 정도이다.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건립된 삼성묘가 제주 성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18세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양씨 족보에 수록된 『제주도(濟州圖)』도 민간에서 제작되어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지도이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1702년에 건립된 삼성묘가 동문 안쪽에 있고, 1755년 광양으로 이전되는 향교가 여전히 성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전반기로 추정된다. 민화풍으로 그려진 지도로 제주목만을 그린 것이다. 고량부 삼성 중의 하나인 양씨 족보에 수록된 지도이다 보니 삼성신화와 관련된 삼성혈, 삼사석 등이 부각되어 있다. 제주읍성을 확대시켜 그렸고, 성안에는 객사, 아사 등의 관청 건물과 관덕정의 모습도 확연하다. 남수각과 북수문의 모습이 홍예의 형태로 그려져 있다. 제주성의 서남쪽 모퉁이에는 칠성단의 모습도 북두칠성의 형태로 그려 넣었다. 이 지도는 필사본으로 제작되어 민간에서 이용되었는데, 서울역사박물관, 제주세계유산본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탐라방영총람』은 관아 배치도라 할 수 있는 지도로 성곽이나 건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고 지명의 배치로 공간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제주목사는 전라도수군방어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목의 읍치가 방어사영(防禦使營)이 되는데 내부 관아 건물의 배치를 지도처럼 표현하고 ‘탐라방영총람’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지도에는 각 관아의 소속 인원도 기재되어 당시 행정 현황도 파악해 볼 수 있다.

관에서 제작된 지도 가운데 목장만을 그린 지도도 전하고 있다. 『삼읍각목장구폐절목』에는 제주도에 설치되었던 목장만을 그린 「목장도형」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1소장에서 10소장까지의 목장과 상장, 침장, 녹산장 등의 산마장이 경계선과 함께 그려져 있다. 각각의 목장에는 동서, 남북의 길이, 당시 사육되던 마필수와 목자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목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풍수지리의 관념에 따라 그린 풍수 지도도 조선후기 제주사회에 풍수지리가 유입됨에 따라 민간에서 제작되어 활용되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영주영도초(瀛州影圖草)』, 『제주지리도식(濟州地理圖式)』 등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수록된 풍수지도는 제주도

의 실제 현장을 답사하여 풍수 형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첨가한 것이다. 화산섬인 제주의 산세가 육지부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풍수지도의 형식은 육지부의 것과 유사하다.

IV. 결 론

고대 탐라왕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주도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특별한 국가적 관심을 받았다. 남방 해로의 길목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은 외적을 막아내는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하게 했고,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에서 형성된 많은 오름과 초지는 목마장 건설의 최적지로 인식하게 했다. 조선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미한 변방이 아니었다.

제주도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지도로 표출되었다. 조선전기부터 제주도만을 단독으로 그린 지도들이 조정에서 제작되어 활용된 사실들은 여러 사료에서 확인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들은 16세기 이후의 지도들이다. 전국의 박물관 도서관 등지에 흩어져 전하는데 대략 60여종 이상이 전하고 있다. 대부분 필사본 지도이지만 목판본 지도도 여러 종 남아 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지도들을 지도의 크기, 양식, 표현 기법 등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면 대축척 단독지도, 군현지도책의 지도, 전국지도첩(책)의 지도, 지리지의 지도, 회화식 지도, 기타 지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각 유형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축척의 단독지도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주류에 해당한다. 『탐라지도병서』와 같은 대형 목판본으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사본으로 존재한다. 국가의 행정, 군사적 용도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당대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지도의 내용이 풍부하고 정교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적이다. 제주도 현지에서 제작되었지만 『탐라지도병서』와 같은 일부 지도는 중앙 관부로 보내져 활용되기도 했다.

둘째, 군현지도책의 제주도 지도는 제주도가 아닌 중앙 관서에서 제작된 것으로 일부 지도는 제주도의 윤곽과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 계열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라도의 군현지도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제주도의 세 고을인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구분하여 그리지 않고 제주도 전체를 한 장에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찬의 대축척 지도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면서도 규격을 축소하여 그렸지만 수록된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이 유형의 지도는 방격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방격이 없는 지도가 더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셋째, 전국지도첩(책)의 제주도 지도는 전국을 대축척으로 그린 지도첩(책)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이다. 제주도만을 단독으로 그린 것은 아니지만 조선전도나 도별도에 수록된 제주도의 지도보다 훨씬 상세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과 같은 김정호의 전국지도뿐만 아니라 『동여도』나 『대동여지도』와 다른 계열의 전국지도첩(책)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대동여지도』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여』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제주도의 윤곽이 유사하고 산줄기의 표현이 맥으로 표현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지리지의 제주도 지도는 읍지의 부도로 그려진 것으로 대부분 1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제주도 전체를 간략하게 그린 것도 있지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제주읍지』에 수록된 「제주지도」처럼 대축척으로 상세하게 그린 것도 있다. 읍지에 지도가 부도로 삽입되는 것은 영조 연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 볼 수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19세기 후반 편찬된 일부 읍지에서 볼 수 있다. 이들 지도에는 마을과 포구, 오름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다섯째, 회화식 제주도 지도는 『탐라십경도』, 『탐라순력도』 등이 대표적이다. 실경화로 그려진 회화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각종의 지리적 사상, 지명 등이 표기되어 있어서 지도의 기능도 지닌다. 『탐라십경도』는 제주의 명승지를 중심으로 그린 것이고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 이형상이 순력의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당시의 지리와 공간 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다. 『탐라십경도』나 『탐라순력도』는 성산일출봉, 산방산과 같은 일부 경관의 모습이 유사하여 동일한 화풍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화풍은 후대의 사본에서도 볼 수 있다.

여섯째, 기타 지도의 유형으로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들, 족보에 수록된 지도, 목장지도, 고적이나 관아 배치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간의 제주도 지도는 대부분 소략하게 그려진 것이 주를 이룬다. 실학자 위백규의 저서인 『환영지』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가 대표적이다. 지방에 거주하던 학자의 저서에서 제주도 지도가 수록될 수 있는 것은 제주가 지니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여타의 다른 섬과는 달리 자연환경이나 역사 문화가 다르고 실제 가보기가 힘든 여건 때문에 이를 지도로 표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다. 제주양씨 족보의 제주도 지도에는 유교적 이념이 강조되거나 삼성신화와 관련된 유적이거나 명승지가 부각된다. 『탐라방영총람』은 지명을 공간적 관계에 따라 배치하여 일종의 관아배치도와 유사한 독특한 지도이다.

참고문헌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제주읍지』
『영주영도초』
『삼읍각목장구폐절목』
오형목, 『여재촬요』
위백규, 『환영지』
이원조, 『탐라지도병지』
이원진, 『탐라지』
이익태, 『지영록』
이익, 『성호사설』
이형상,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 김기혁, 2018, 「17~18세기 제주도 고지도의 하천 묘사에 나타난 지도 계열 연구」, 『문화역사지리』 30-2, 46-74.
- 김오순, 2006,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교육과학연구』 8-2, 133-150.
- 김태호, 2014, 「탐라십경도에 표현된 제주도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21-4, 149-164.
- _____, 2016, 「『탐라순력도』의 지형경관에 투사된 지형인식」, 『탐라문화』 51, 177-206.
- _____, 2017, 「옛 그림 속 제주의 지형경관 그리고 지형인식」, 『대한지리학회지』 52-2, 149-166.
- 노재현 외, 2009,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조경학회지』 37-3, 91-104.
- 양보경, 2001, 「제주 고지도의 유형과 특징」, 『문화역사지리』 15, 81-102.
- 오상학, 2000,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탐라순력도연구회.
- _____, 2004,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31-152.
- _____, 2015, 『한국전통지리학사』, 들녘.
- _____, 2016, 「목판본 탐라지도의 내용과 지도학적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16-2, 13-26.
- 오창명, 2000, 「『탐라순력도』의 땅 이름」,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탐라순력도연구회.
- _____, 2004,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 지명 연구」, 『제주도연구』 25, 99-119.
- _____, 2006, 「『탐라도』와 지명」, 『탐라문화』 28, 145-172.
- _____, 2007, 「『동여비고』의 제주 지명 연구」, 『한민족어문학』 50, 1-36.
- _____, 2008a, 「『대동여지도』(1861)의 제주 지명」, 『제주도연구』 31, 87-126.
- _____, 2008b, 「『영주산대총도』의 제주 지명」, 『지명학』 14, 81-99.
- _____, 2017, 「『탐라십경도』의 제주 지명」, 『지명학』 26, 141- 181.

- 윤민용, 2011,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 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3-1, 37-54.
- 윤봉택, 2007,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라, 2007, 「17세기말 탐라십경도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17, 69-117.
- 이상태, 1996, 「제주도 고지도 연구」, 『아세아문화연구』 1, 1-28.
- _____, 1998, 「『東輿備攷』 解題」, 『東輿備攷』, 경북대학교 출판부.
- 이찬, 1979, 「18세기 탐라지도고」, 『지리학과 지리교육』 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12.
- 임은진, 서태열, 2012, 「여재촬요의 세계지리영역에 대한 고찰」, 『사회과교육』 51-4, 181-194.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제주의 옛 지도』.
- 제주시,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탐라순력도연구논총』.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미국 의회도서관 <https://www.loc.gov/resource/g7903cm.gct00153/?sp=1>에서 2019년 12월 1일 인출.

아시아경제, 「홍콩서 해외 소장 우리 고미술품, 한국 추상화 경매」, 2015년 5월 19일.

Abstract

The Typic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ituation of Old Maps of Jeju Island in the Joseon Dynasty

Oh, Sang-Hak*

The fact that the Jeju Island maps drawn by Joseon government alone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produced and used in the administration is confirmed in various sources. The existing maps of Jeju Island in the Joseon Dynasty are maps from the 16th century onwards, and are scattered around the museum libraries nationwide, and more than 60 kinds of them are reported. Most of them are manuscript maps, but there are many kinds of wood-block printed maps. The existing maps of Jeju Island in the Joseon Dynasty can be classified into the large scale maps of the government, the maps prefectures, the maps of the national atlas, the maps of the gazetteer, the map of painting style, and other maps by classifying the types based on the producer, the size of map, the style and expression technique. The large scale map of the public service is the most sophisticated maps reflecting the latest information, and it was produced for administrative or military purposes. The maps of prefecture atlases are relatively small, and paintings such as the Tamnasibgyeongdo have been produced and continued to the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 Jeju Island, government official maps, pictorial maps, Tamnasibgyeongdo, wood-block printed map.

교신 : 오상학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E-mail: ohsanghak@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20. 01. 26

심사완료일 : 2020. 02. 14

게재확정일 : 2020. 02. 14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